

〈서울의 문〉 심사총평

본 심사위원회는 서울 진입부에 서울의 경계를 알리는 상징작품 〈서울의 문〉을 위한 총 56점의 응모작품 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응모작품이 (1)프로젝트의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가? (2)주어진 현실적 조건 내에서 실현가능한가? (3)동시대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할 만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조형성과 상징성을 담고 있는가?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이번 응모작품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후보작을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일반공모를 통해 전문가 뿐 아니라 신진작가 및 일반인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 기대와 달리, 상당수의 응모작이 기존의 관행적인 형식을 답습하거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거나, 21세기 현대도시이자 역사도시인 서울의 이미지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오늘의 서울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이들 응모작들 중에서 일정 수의 후보작을 선정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모에 참여 해주신 응모작가들께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